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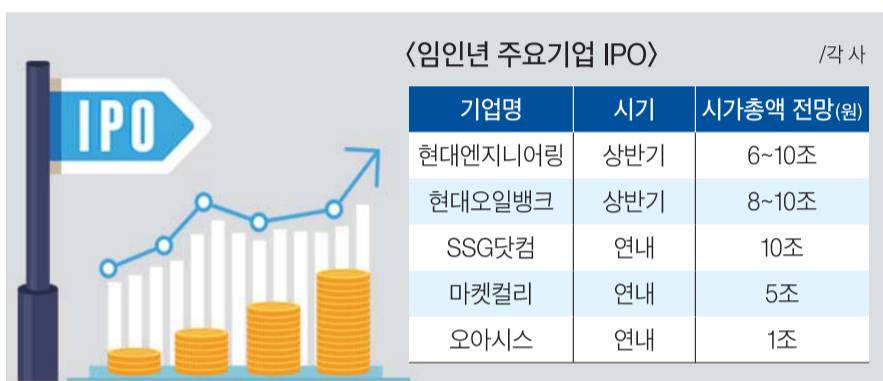
“제2의 LG엔솔은 바로 나”... 10兆 규모 ‘IPO대어’ 줄줄이

(기업가치)

2022년 대형 공모주

LG에너지솔루션, IPO 신기록
투자자들 대형 공모주 관심 ↑

현대엔지니어링 25일 수요예측
현대오일뱅크 상장 예비심사 신청



역대급 IPO(기업공개) 신기록 세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형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엔솔 투자자들의 시선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달성)’ 여부에 쏠리고 있다.

LG엔솔은 기존 청약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우며 균등 배정을 노린 투자자들은 1~2주(평균 1주 배정, 소수점 이하 추첨 배정으로 2주 배정 가능)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균등배정으로 최소 한 주는 확보하겠지만 미래에셋증권 등을 통해 청약한 투자자 10명 중 7명은 1주도 받지 못한다. 배정 물량이 적었던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1.2대 1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개 증권사가 이틀간 진행한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모두 442만4470개 계좌가 참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대 1로 집계됐다.

◆LG엔솔, 대부분 1~2주 받을듯...미래에셋 1억 넣어도 ‘1주’

대표 주관사로 배정 물량이 가장 많았던 KB증권이 6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하나금융투자 73.72대 1 ▲신영증권 66.08대 1 ▲하이투자증권 66.0대 1 ▲대신증권 65.3대 1 ▲신한금융투자 64.5대 1 순으로 높았다. 균등 배정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신증권으로 1.74주다. 한 명당 최소 한 주는 받을 수 있으며 74%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1명당 추가로 1주를 더 받을 수 있다.

뒤이어 하이투자증권이 1.67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영증권(1.58주), 신한금융투자(1.38주), 하나금융투자(1.12주), 미래에셋증권(0.27주) 순으로 집계됐다.

비례배정도 경쟁률이 높아 1억원을 넣더라도 많은 물량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경쟁률도 역시나 미래에셋이 422.4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금융투자(147.4대 1), 신영(132.1대 1), 하이(132.1대 1), 대신(130.7대 1) 순이었다. 가장 낮은건 신한(129.1대 1)이다.

비례 경쟁률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증권에 1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1주를 받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며 두번째로 경쟁률이 높은 하나금융투자는 4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청약 증거금으로 1억 500만원을 투자했다면,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균등 배정을 제외하고 최소 5주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LG엔솔, 따상 시 ‘주당 48만원 쟁긴다’

LG엔솔이 상장 당일 ‘따상’에 성공할 경우 주가는 78만원까지 오른다. 투자자는 상장 첫날 주당 48만원의 차익을 쟁길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70조2000억 원이다. 국내 시총 3위 기업에 올라서며 LG그룹의 전체 시총도 시가총액은 182조5200억 원으로 불어 현재 재계 4위에서 2위로 쏠쩍한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기관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 보유 물량이 77%나 돼 향후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LG엔솔이 이르면 2월 코스피200,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주요 증시 지수에 포함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GM, 스텔란티스 뿐만 아니라 혼다 등 완성차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업체들과의 조인트벤처(JV)를 확대하며 초격차전략을 지속 고려하면 시장점유율 확대와 차별적인 밸류에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 청약을 마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공모가는 30만원이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공모가의 90~200% 범위의 가격으로 정해진다.

◆IPO대어 줄줄이 대기 ‘현대엔지니어링 25일 수요예측’

LG엔솔의 역대급 흥행을 타고 공모금액 1조원을 넘어서는 ‘IPO 대어’들이 증시 입성을 대기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기업가치 10조원에 도전하는 기업만 4곳이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1월은 공모주 비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공모 열기가 한층 뜨거워져 기업들의 공모가가 줄줄이 희망가격 상단을 터쳐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예정 기업은 가치가 1조원 넘는 곳만 14곳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

리티 등이 증시 입성 예정이다.

상반기에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에 나서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창립 20년 만에 IPO에 나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25~26일 기관 수요예측, 2월 3~4일 일반 청약을 거쳐 2월 15일 상장할 예정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10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공모 예정 금액은 9264억~1조2112억원이다. 이는 건설업종 내 시총 1~2위 수준이다. 예상대로 상장이 진행된다면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시총을 넘어 건설 대장주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13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 또한 상장후 시총이 8~10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새벽배송의 3대 주자 SSG닷컴과 마켓컬리,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를 각각 10조원, 5조원, 1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예상하는 시총 규모는 SSG닷컴이 약 10조원으로 3사 중 1위다. 이들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굵직한 증시 입성 상장사가 많아 IPO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스피 시총 2위 가능성... 주요 지수편입 등 주가상승 기대감 ↑

>> 1면 ‘LG에너지솔루션 새역사’서 계속

수요예측 단계에서부터 공모가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은 희망 공모가 밴드 산정 과정에서 비교기업으로 중국 CATL과 삼성SDI를 선정했다. 적정 시가총액 112조원에 37.4~46.4%의 비교적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7개 주관사 수수료 수익만 1000억
역대급 흥행 대박에 IPO 주관을 맡

은 국내 증권사들도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금액의 0.7%인 892억5000만원을 인수 대가로 받는다. 여기에 상장 관련 업무 성신도, 기여도 등을 감안해 공모금액의 0.3% (382억5000만원)를 추가로 차등 지급한다. 최대 1275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또 증권사들은 건당 1500~2000원가량의 청약 수수료를 일반 투자자에게

부과해 50억원 가량의 추가 수입도 확보한 상태다. 온라인 기준 KB증권은 건당 1500원, 미래에셋·대신·하이투자·신영·하나금융투자는 2000원을 청약 수수료로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무료다.

◆상장 당일 코스피 시총 2위 등극 가능성 ↑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7일 상장 당일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기업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코스피 시총 1위는 삼성전자(455조원), 2위는 SK하이닉스(90조원)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주에 속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의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증가는 평균적으로 78%”라며 “작년 평균 수준의 증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27일 예상 증가는 53만4000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12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수 편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200,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주

요 지수에 편입될 경우 1조원 안팎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MSCI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2831억원) ▲코스피200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1960억원) ▲KODEX 2차 전지·TIGER 2차전지테마 ETF(3764억원) 등이다.

허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0 지수에는 3월 11일, MSCI 지수에는 2월 14일 장 마감 후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에프앤가이드의 2차 전지 지수 방법론이 변경되며 ‘KODEX 2차전지산업 ETF’ 및 ‘TIGER 2차전지테마 ETF’는 2월 9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교체 매매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